

Dubai유, 27.57달러로 소폭 하락

석유공사, 미국 동부 정전사태 해결 ... 석유제품 공급가격 내림세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19일 중동산 Dubai유는 현지에서 0.03달러 내린 배럴당 27.57달러에 거래됐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0.30달러 떨어진 30.85달러를 기록해 8월13일 이후 처음으로 30달러 선에 안착했으며, 북해산 Brent유도 0.05달러 하락한 25.19달러로 장을 마쳤다.

석유공사는 미국 동부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중단됐던 정유공장의 가동이 잇따라 재개되면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돼 국제유가가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20>